

코로나19 예방 위한 방역 활동 앞장

전주시, 6개 분야 34개 기관 참여 '통합돌봄 생활방역지원단' 발대식... 캠페인 전개·시설별 방역활동 강화

전주시가 지역 내 노인복지시설 등과 함께 민간 주도의 방역안전망을 가동한다.

시는 지난 23일 대우빌딩 7층 영상회의실에서 통합돌봄 생활방역지원단(상임대표 박주중) 발대식을 가졌다. 노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 재가노인복지협회, 노인맞춤돌봄수행기관, 시니어클럽, 자활지원센터 등 6개 분야 34개 기관으로 구성된 통합돌봄 생활방역지원단은 노인과 장애인들의 코로나19 감염을 막고자 능동적인 방역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이날 발대식에서 생활방역지원단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정기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시설별 방역활동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생활방역에 대한 교육을 통해 방역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도 했다.

생활방역지원단은 또 방역활동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 등 다양한 환경보호 활동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박주중 상임대표는 "체계화된 방역 매뉴얼을 정비해 각 시설별 감염병 대응에 따른 혼선을 예방하고,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및 백신



전주시는 지난 23일 대우빌딩 7층 영상회의실에서 통합돌봄 생활방역지원단 발대식을 가졌다.

접종 홍보 활동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감염병에 안전하고 건강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감염병에 가장 취약한 어르신 분야 시설 및 단체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활동에 적극 앞장서 주심에 감사드리

다"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완산도서관 새 단장 밑그림 그렸다

전주시, 문화재생 리모델링 설계 공모 AUD건축사사무소 출품작 선정

전주 완산도서관을 시민들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새 단장하기 위한 설계가 완성됐다.

전주시는 최근 '완산도서관 문화재생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 공모 심사위원회를 열고 AUD건축사사무소의 출품작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당선작은 개방적인 공간 구성의 개념을 유지하면서 수직과 수평 동선이 명료하고 효율적으로 연결된 부분이 돋보이며, 내부 공간과 연계되는 합리적인 입면과 적절한 옥상공간 계획이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실내공간에 고정 칸막이를 최소화해 개방감을 극대화함으로써 관리자의 관리, 감독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향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시는 이번 당선작을 토대로 오는 10월까지 기본·실시설계를 진행한 뒤 12월중 본격 착공해 오는 2022년 하반기 개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완산도서관은 오는

2022년까지 총사업비 56억원이 투입돼 독립출판 전문도서관이자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단장된다. 지하층부터 지상 3층까지 테마전시 공간, 북카페, 자료실, 작가활동 지원공간 등으로 꾸며 지역 출판문화의 거점으로 구축된다.

시는 이 같은 완산도서관 문화재생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문화시설이 부족한 완산동과 서학동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시설 역할을 수행할 공간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인근 서학동 예술마을과 완산칠봉 꽃동산, 동학농민혁명 파랑새관 등과 연계해 시민들의 발걸음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남미 전주시립도서관장은 "완산도서관은 전주의 유일무이한 책 문화 도서관으로 탈바꿈될 것"이라며 "조성 과정에서 시민들의 수많은 추억이 담겨 있는 기존 완산도서관의 역사 또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주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지원 동호회 공모

전주시와 문화통신사 협동조합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021 전주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할 동호회를 공개모집한다.

이 사업은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동호회 간 교류활동을 확장해 건강한 생활문화 공동체 형성을 돕고자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무용, 문학, 미술, 사진, 연극, 서예, 음악, 전통, 영화, 미디어, 건축, 공예 등 문화예술 분야 5인 이상 구성된 전주 지역 순수 아마추어 동호회다.

선정된 동호회에는 교육비, 공간 임대료, 발표회 운영비 등 활동 지원비용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교류를 위한 차량 임대비와 악기 운반비 등으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참여를 원하는 동호회는 문화통신사 협동조합(ctelecom.co.kr)에서 내려 받은 활동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이메일(ctelecom@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설공단, 교통약자 콜택시 운전원 대상 안전 교육

안전속도 5030 정책·교통사고 유형별 사례·예방법 등

전주시설공단(이사장 백순기)은 교통약자 콜택시 '이지콜' 운전원을 대상으로 교통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17일부터 전국으

로 확대 시행 중인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숙지해 교통약자 이용객은 물론 안전한 보행자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속도 5030'은 주요 도심 도로

차량 운행 최고속도를 기존 60km/h 이하에서 50km/h 이하로 낮추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의 이면도로는 30km/h 이하의 속도로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존의 차량 중심 교통문화를 보행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정책이다.

도심 차량 운행속도를 낮추는 것은 UN의 권고 사항으로 OECD 37개 국가 중 31개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이들 나라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0~25%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교통공단 소속 전문 교수를 초청해 진행된 교육에서는 안전속도 5030뿐 아니라 교통사고 유형별 사례와 예방법, 차량 안전장치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도 이뤄졌다.

백순기 이사장은 "교통약자 이용객은 물론 보행자 모두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특히 지역의 교통약자 이용객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지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주시설공단은 교통약자 콜택시 '이지콜' 운전원을 대상으로 교통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외국인 기자단, 전주 매력 홍보

한국관광공사, 전주서 외국인 SNS 기자단 팸투어·발대식 진행

전주를 비롯한 대한민국 관광거점도시의 매력을 세계로 알릴 외국인 기자단이 꾸러졌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3일과 24일 1박2일 일정으로 전주를 방문해 '외국인 SNS 기자단 팸투어' 및 '온라인 SNS 기자단 발대식'을 진행했다.

유럽주와 아메리카주, 오세아니아주 외국인 20명으로 구성된 한국관광공사 외국인 SNS 기자단은 개인 SNS 채널과 전주시 관광 SNS를 통해 전주의 전통문화와 관광지, 음식 등의 체험 사진과 영상을 세계로 알리게 된다.

먼저 23일에는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한복체험, 부채 만들기, 전통 다례, 전통 국악체험 등 전주가 자랑하는 문화를 체험하고, 전라감영 야간투어를

즐기는 팸투어를 진행했다.

이어 24일에는 전주를 비롯한 5대 관광거점도시들과 한국관광공사가 온라인 생중계로 펼친 '글로벌 SNS 기자단 디지털 통합 발대식'도 가졌다.

이날 발대식은 소그룹으로 나뉘어 각각 경기전과 오목대, 향교, 팔복예술공장, 완산꽃동산에서 열렸다.

최라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코로나19 이후 외국 MZ세대의 여행지는 그들이 SNS 등으로 겪은 익숙하지만 이색적인 곳이 될 것"이라며 "이번 한국관광공사 외국인 SNS 기자단의 전주여행이 그들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전 세계에 널리 소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